

종교 개혁 주일 예배 2026년 10월 25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 복의 근원 하나님 / 찬송가 1(신) 1(구)

*성시 교육 / 성시 교독문 79 번(요한복음 15 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찬송가 290(신) 412(구)

목회 기도 / 박화신 목사

성경 봉독 / 열왕기하 18 장 3-6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부릅니까?** / 박화신 목사

찬송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찬송가 585(신) 384(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교회가 오랫동안 해 온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를 경험했던 방식이라도 오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다시 살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시는 사건에 사용하셨던 놋뿔이 우상이 되자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문제는 놋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익숙한 전통과 성공했던 사역, 과거의 경험을 지키느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조건 과거를 버리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도 말씀에 비추어 다시 판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

살후 2:13-16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 단지 죄의 형벌을 면하고 심판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들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흔들어 놓지만,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세워 가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형편이나 자신의 신앙적 성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영광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은혜이며, 그 여정도 은혜이고, 마침내 이르게 될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샘소식

- 2026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의기쁨.평안의 모습으로 임재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런 나라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예배 중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다음 주일, 11월 1일 주일 예배 EM과 연합하여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에 Daylight Saving Time 해제됩니다.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광기(미숙) 장로님 가정, 달라스 방문 중에 있습니다.
- 건강 회복 중에 계신 분들(강영호, 박래석, 한규철)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 김종원(윤하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중순 즈음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11월 예배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조준기(1) 한광기(8) 최명희(15) 최상천(22) 조은영(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열왕기하 18:3-6

종교개혁 주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부릅니까?

과거의 은혜를 넘어
오늘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는 높은 곳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베며 놋뿔을 부수었더라.”

열왕기하 18:4

오늘 말씀의 3가지 핵심

1 문제는 출처가 아니라, 지금 차지한 자리입니다 (3-4절)

놋뿔은 처음부터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신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에 백성은 그것에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쓰였는지와 현재 무엇이 되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2 은혜의 기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4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너무 놓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때 우리를 살렸던 사역, 강렬한 신앙 체험, 존경하는 지도자, 오랫동안 지켜 온 전통이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 다시 놓아야 합니다.

3 부수는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가입니다 (5-6절)

히스기야의 믿음은 놋뿔을 부수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연합하며 계명을 지켰습니다. 개혁은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

지난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열려 있겠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계속 새롭게 점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연합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열왕기하 18:6